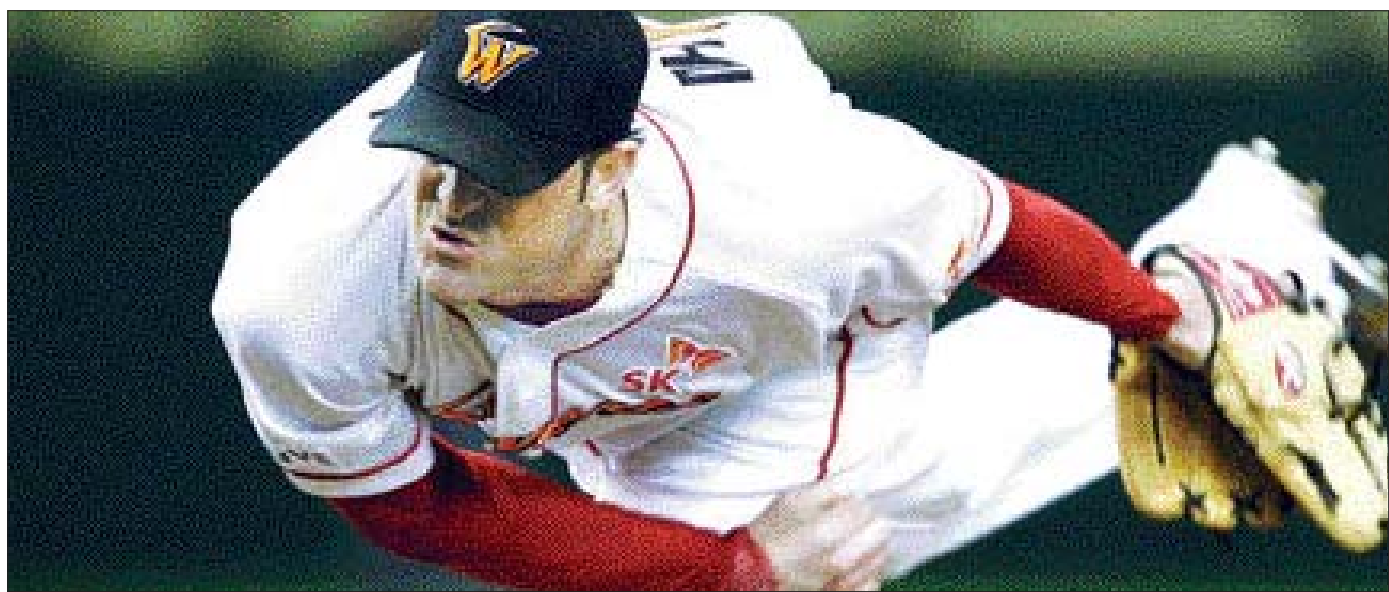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당일 최대 2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7' 한국 SK 와이번스 대 중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SK 선발투수로 나온 로마노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수, 이번엔 선발 꺾차나

네덜란드리그 11라운드 아약스전 출전 기대

이영표·김동진도 자국리그 주말경기 나설듯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에레디비지)에 이적 후 잘 적응하고 있는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이제 선발 출전을 노리고 있다.

페예노르트는 11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데 퀴프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전통의 라이벌 아약스와 2007-2008 에레디비지에 11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페예노르트는 현재 8승2패로 아약스(7승3무)와 승점4 동률이지만 골득실(아약스 20·페예노르트 12)에서 뒤진 중간 순위 2위. 페예노르트로서는 선두 자리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일전이다.

이천수도 선발 출격 명령을 아타게 기다리고 있다.

4경기 연속 후반 교체 출전만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적 직후 컨디션이 가다듬어 지지 않았다는 코칭스태프의 배려였지만 몸 상태를 끌어올린 지금은 풀타임을 뛰어도 문제 없다.

9일 오전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컵에서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를 견인한 이영표(토트넘 홋스퍼)와 김동진(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주말 정규리그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위건 어슬레틱과 홈에서 맞붙는데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새로 부임

한 이후 불박이 왼쪽 풀백으로 나서고 있는 이영표는 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턴과 시즌 최종전을 치르는 러시아 리그 선두 제니트는 2위에 승점2 차이로 앞서 있어 이번에 이기면 우승 확정이다. '골 넣는 수비수' 김동진이 우승 속포까지 쏘아 올릴 지 기대된다.

합계은 주전경쟁에 유무과문까지 겹쳐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동국(미들즈브러)은 볼턴 원더러스와 경기에서 정규리그 데뷔골에 도전하고, 지난 2경기에서 교체 투입에 이어 결장했던 설기현은 리버풀 원정에서 출전 기회를 노린다.

지난달 27일 캄파 오사카전에서 골을 넣은 일본 J-리그 조재진(시미즈)은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야구 '쾌속항진'

코나미컵대회, 中 울스타 13-0 콜드게임 승

광현에 대한 조영 기사도 빠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차전서도 日 주니치 드래곤스 6-3 물리쳐

국내 프로구단 중 최초로 코나미컵 우승에 도전하는 SK 와이번스가 중국 울스타를 가볍게 꺾고 2연승을 거뒀다.

SK는 9일 일본 도쿄돔구장에서 계속된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7' 2차전에서 장단 10안타와 사사구 9개로 공략해 실책 3개로 자멸한 중국 울스타를 13-0, 7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쳤다.

전날 일본시리즈 우승팀 주니치 드래곤스를 6-3으로 격파한 데 이어 2연승을 달린 SK는 대만과 3차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우승팀이 아닌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끌어모은 국가대표 팀이었지만 아무래도 실력 차가 컸다.

SK는 2회말 이진영이 볼넷, 박재홍은 좌전안타로 1사 2,3루를 만든 뒤 박경완이 내야땅볼을 쳐 선취점을 뽑았다.

3회에는 타자일순하며 4점을 뽑았다. 볼넷과 실책 등으로 1사 2,3루의 기회를 잡아 이호준이 볼넷 타구가 1루수 키를 넘어가는 우전안타가 돼 3-0으로 앞섰고 상대 실책과 내야안타 등으로 2점을 보태 5-0으로 달아났다. 4회에는 김재현의 2루타로 1점을 보태

SK는 5회 무사 만루에서 최정이 2타점 적시타, 조동화의 희생플라이로 3점을 추가했다. 9-0으로 크게 앞선 6회말에는 대타 김강민이 중국 외야수의 어실픈 수비 덕에 행운의 2루타로 출루한 뒤 역시 대타 정상호와 최정의 연속 적시타와 상대 실책 등으로 다시 4점을 보태 13-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콜드게임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7회 이후 10점 이상 차이 나면 콜드게임으로 처리된다.

SK 선발 로마노는 5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SK는 10일 오후 6시 대만 우승팀 퉁이 라이온스와 3차전을 갖는다.

한편 '스포츠포츠' '스포츠포츠'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언론은 9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SK가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최강팀 결정전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에서 일본 챔피언 주니치 드래곤스를 물리친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일본이 이 대회에서 첫 패배를 당한 게 자못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초점은 주니치의 완패에 맞춰져 있었지만 혼신의 역투로 SK 승리를 이끈 좌투수 김



홍진주가 9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미첼컴퍼니 LPGA토너먼트 1라운드 18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박찬호 '컨디션 굿!'

국가대표팀 평가전 ... 두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 주장 박찬호(33)가 상비군과 평가전에서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12월 예선전에서 기대감을 부풀렸다.

박찬호는 9일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상비군과 평가전 세 번째 게임에서 선발 전병호에 이어 3회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2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줬을 뿐 실점하지 않고 잘 던졌다.

5일 상비군과 1차 평가전에서 최고구

속 145km를 찍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박찬호는 이날도 최고 144km짜리 빠른 볼을 뿌리면서 7타자를 상대로 강민호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을 뿐 나머지는 범타 처리했다.

1~2차전에서 상비군에 5-10, 1-9로 대패했던 대표팀 타선은 국내에서 마지막 평가전이 벌어진 이날 초반부터 작정한 듯 대폭발, 17-5로 대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얼짱' 티샷

강경남 '다승왕' 힘찬 시동

KPGA하나투어챔피언십 2R 13언더파 단독 선두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이 한국프로골프(KPGA) SBS코리언투어 하나투어챔피언십에서 공동 다승왕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냈다.

강경남은 9일 경남 진해 용원골프장(파 72·6천959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로 무려 7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3언더파 131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전날 선두였던 전태현(40·켈러웨이)도 4타를 줄여 11언더파 133타를 적어냈지만 강경남의 불꽃 타에 밀려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노장 신용진(43·삼화저축은행)과 작년 대회 우승자 김형태(30·테일러메이드)도 11언더파 133타를 때려내며 공동 2위에 올라 있어 마지막까지 접전이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현·세리·진주 '상위권'

LPGA미첼컴퍼니챔피언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미첼컴퍼니 LPGA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했다.

9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로버트 트랜트 존스 골프장(파72·6천25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김미현(30·KTF), 이선화(21·CJ)가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세리(30·CJ)와 홍진주(24·SK에너지)도 2언더파 70타를 때리며 공동 8위에 올랐고 출산 뒤 투어에 복귀한 한희원(28·윌라코리아)은 1언더파 71타로 강지민(27·CJ)과 함께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최경주·신지애 고향에 온다

최, 완도 방문 팬사인회 ... 신, 모교 환영행사 참석

골프스타 최경주와 신지애가 잇따라 고향을 방문하고 모교를 찾는다.

미국 프로골프(PGA)에서 활동중인 '탱크' 최경주는 오는 20일 오후 고향인 완도를 방문한다.

완도군은 "완도군 생활체육협의회와 골프연합회 초청으로 고향을 찾는 최경주 선수가 카 퍼레이드와 환영 축하 공연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선수는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원하는 완도 군민의 소망 패를 전달 받은 뒤 팬 사인회, 장학금 전달 등을 할 예정이다.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올해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 8승으로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운 신지애는 환영 행사도 함평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9일 "고장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쾌거를 기리기 위해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가맹경기 단체 회장과 이 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일 군청 소회의실 등지에서 신지애 선수 환영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에 이어 이석형 군수의 인사말, 정현철 함평군 의회 의장의 축사, 기념품 및 꽃목걸이 전달, 2008 세계 내비·공중 엑스모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념촬영을 마친 뒤 군청 광장을 출발해 골프고등학교를 순회하는 카퍼레이드를 펼친다.

또 모교를 방문해 기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골프교실을 열어 후배들에게 퍼팅과 칩샷 등의 기술을 지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일(토)
 ▲2007 ISU 피겨그랑프리 김연아출전(06:00-SBS)

▲07/08 프로농구(삼성:SK)(14:50·SBS스포츠) <오리온스:KCC>(14:50·X-ports)

▲07/08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신세계)(16:50·SBS스포츠)

▲2007 코나미컵 야구(주니치드래곤스:중국)(12:00·MBC ESPN) <SK와이번스:통이라이온스>(18:00·MBC ESPN)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선더랜드:뉴캐슬)(21:30·MBC ESPN)

11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더비카운티:웨스트햄)(00:00·MBC ESPN) <리버풀:풀럼>(02:00·MBC ESPN)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신한은행)(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SK:KTF)(14:50·SBS스포츠) <전지랜드:동부>(17:00·X-ports)

▲2007 코나미컵 야구 결승전(18:00·MBC ESPN)

▲07/08 네덜란드리그(페예노르트:아약스)(21:10·SBS스포츠)

12(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블랙번)(00:00·MBC ESPN)